



한국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2007 결과

전 세계 26개국 255개 업체가 참가한 가운데 '한국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2007'이 지난 10월 16일부터 21일까지 서울공항에서 개최되어 전 세계 최첨단 항공우주무기와 방위산업 기술의 현재와 미래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10월 16일부터 19일까지(4일간) 비즈니스데이 기간 동안 전 세계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관련 전문가들이 행사장을 방문한 가운데 국내 참가업체들은 총 10억 달러 규모의 수주 및 상담실적을 기록하여 국산 방산장비의 우수성을 대내외에 과시하고 해외 수출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일반관광객의 입장이 가능한 주말에는 약 25만명의 일반 국민이 입장하여 다양한 이벤트를 즐겼고 이를 통해 국민과 함께하는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축제의 장을 마련했다.

명실공히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대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로 성장한 본 전시회는 선진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체와의 기술교류 확대를 통한 국내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발전 기반 조성, 국내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생산제품 수출기회 제공, 항공우주산업에 대한 대국민 홍보 및 교육기회의 장 마련을 목적으로 지난

1996년 제1회 전시회가 개최된 이후 격년제로 개최되고 있다. 특히, 지난 2005년 행사를 기점으로 국내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생산제품의 수출기회 확대는 물론 선진 해외업체와의 기술 정보 교류를 통한 국내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을 발전시키는데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전시회 기간 동안 인도네시아 공군참모총장을 비롯한 37명의 세계 각국 총장급 VIP가 내한하여 공군참모총장회의와 국제 항공



우주 심포지엄 등 공식행사를 통해 국내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역량을 직접 확인하는 기회를 가졌다. 특히 공군은 공군참모총장회의를 통해 KT-1과 T-50 우수성을 소개하고 해외 수출을 위한 전방위 세일즈 활동을 펼쳤다. 주요 VIP들 역시 KT-1과 T-50 실전 배치를 통해 더욱 선진화된 우리 공군의 조종사 양성체계에 대해 매우 높은 관심을 표했다.

달라진 2007년도 행사

금번 “한국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2007”은 과거 전시회와는 확연히 구분되는 차별성을 갖고 있다. 우선 과거의 전시회는 F-X, E-X 등 해외 업체들이 자사 제품을 우리나라에 판매하기 위한 각축장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행사는 KT-1 기본 훈련기 및 T-50 고등훈련기를 포함, K-21 차기보병장갑차, K-10 탄약차, 각종 차륜형 장갑차 등 우리 손으로 만든 다양한 방산 제품이 전시됐다. 전시장을 방문한 각국 무관 및 방산 업체 관계자를 대상으로 활발한 상담활동을 펼치고 해외 수출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특별한 의의를 갖는다.

또한, 지난 제5회 전시회에 이은 대통령 개막식 참석으로 동 전시회는 국가 차원의 전시회로 안정적 위치를 확보하게 됐다.

행사 규모가 확대된 만큼 해외 전시 참가자 숫자도 증가했다. 당연히 관련 업무도 함께 증가했지만 서류에 의한 행정절차에서 과감히 탈피, 홈페이지를 기반으로 한 전자관리 시스템을 도입하

여 서비스 환경을 개선하고 관련 업무를 간소화해 참가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양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질적인 성장도 동시에 거둔 것이다.

과거에 비해 인터넷을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한 점 역시 이번 전시회의 특징 중 하나다. 관람객 편의를 위한 충분한 사전 홍보 및 부대정보가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되었으며 업무 제휴를 통해 협력사 홈페이지에서도 관련 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전시회 관련 정보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관람객들에게 충분히 사전 정보를 제공하였으며, 인터넷 티켓 판매와 인터넷 지리정보 서비스를 통한 주차장 안내서비스를 제공하여 관람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였다.

전시현황



국산 지상장비 전시품



지난행사에 이어 올해도 대통령 내외분이 개막식 행사에 참석해 주었다.

총 26개국, 255개 업체, 실내 855부스, 살데 26동의 전시장 규모는 2005년 행사 보다 20%이상 확대된 것이다. 국내 업체로는 T-50과 KT-1을 개발한 한국항공우주산업을 포함, 대한항공, 삼성탈레스, 위아, 로템, 삼성테크윈, 두산인프라코어, 한화, 도담시스템, 기아자동차, 피스텍, 한국로스트웍스, LIG넥스원, S&T중공업 등 항공 및 지상장비 분야 업체들을 포함해 96개 업체가 홍보 부스를 꾸몄다.

해외업체로는 세계적인 항공기

제작업체인 Boeing(미국)을 비롯해 Lockheed Martin(미국) Northrop Grumman(미국), BAE Systems(영국), GE Aviation(미국), Raytheon(미국), SAAB(스웨덴), Agusta Westland(이탈리아), Atlantic Inertial Systems(영국), Electronica(이탈리아) 등을 포함해 169개 업체가 참가했다.

야외전시장에는 우리 공군의 F-15K, T-50, KF-16, F-4E, RF-4C, F-5E, KT-1, T-59, T-103, C-130, CN-235, HH-32/47/60 등과 미국의 F-15, F-16, A-10, AH-64(아파치헬기), KC-135, 민간의 SW-4, L-410, Cessna TU206, 유로스타, S-61N 등 48기종 60대의 항공기가 전시됐다.

지상 장비로는 K-9자주포, 차륜형 장갑차, 천마(단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비호(30미리 자주대공포) 등 7개 업체 23대의 방산장비가 일반인들에게 공개됐다.

특히 국내 방산 업체들은 우리 손으로 만든 주요 방산무기를 전시하여 국가 위상을 더욱 드높였으며 역대 어느 전시회보다도 많이 참가한 해외 VIP에게 해외 수출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공군참모총장, 획득관련 담당자가 내한해 그 어느 때보다도 활발한 군사교류와 함께 방산제품 판매에 대한 기대가 커졌다.

전시회와 함께 개최된 세미나

개막전일인 15일에는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공군주최로 약 450여명의 국내외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항공우주력 건설과 항공우주산업 육성'이라는 주제로 국제 항공우주 심포지엄이 개최되었다. 공군 참모총장의 개회사 한국항공우주협회장과 인도네시아 공군참모총장의 기조연설과 함께 시작된 오전 행사에서는 야스오 오쿠시(전항자대 예비역 중장) 연구원 등을 포함하여 총 4편의 주제가 발표되었다. 오후 2부 행사에서는 램킨(Lemkin) 미 공군성 차관보 등 총 4편의 주제발표를 함으로써 관련분야의 세계적인 권위자와 함께 국내 항공우주기술의 현주소와 미래발전 방향을 조명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갖었다.

또한 같은날 오후 "공군 비행체계 발전방향"이란 주제로 공군 참모총장회의를 개최함으로써 방한 외국 참모총장에 대한 군사외



T-50의 편대비행 모습

또한 해외 업체들은 KHP 등 주요 방산무기 국산화 계획에 참여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이 펼쳐졌으며 그 분야는 완제품이 아닌 부품, 소재 등 방위산업 전반에 걸친 것이었다. 이와는 별도로 무인 무기체계와 스텔스 무기체계에 대한 소개와 장비 전시도 함께 이루어져 명실상부한 종합 방위산업 전시회로서의 면모를 갖추었다. 이를 반영하듯 해외 VIP가 올해는 32개국 37명의 국방장관 및



터키 첫 수출 성과를 이룬 KT-1



국제 항공우주 심포지엄 모습

교와 함께 한국 공군비행 교육체계 우수성 및 발전방향 홍보, KT-1/T-50 수출 간접 지원의 성과를 거두었다.

행사기간중 행사장에서는 ‘첨단 무기체계 기술발전 동향과 항공우주력 건설’이라는 주제로 17, 18일 세미나실에서 개최되어 양일간 약 750명의 청중이 참석하였다. 항공우주시대를 맞아 새로운 무기체계 이론과 응용기술을 소개하고 전장 환경 변화에 따른 항공우주력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된 이번 세미나에서는 항공무기, 정보전자전, 우주방호, 시물레이션의 소주제로 총 23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최근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무인항공기/차량/함정과 관련한 ‘UVS 국제세미나’도 19일 행사장 세미나실에서 개최되어 총 8편의 주제발표와 함께 관련 인사들의 활발한 토론이 있었다.

국민과 함께하는 축제

전시회 기간 중 진행된 곡예비행과 시범비행은 일반 국민에게는 공군력의 실체를 직접 확인하고 해외 방산 관계자에게는 KT-1과 T-50 등 우리 손으로 만든 자주국방 장비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퍼블릭데이 기간 중 루마니아 민간 곡예비행팀의 화려한 에어쇼가 성남 상공에 펼쳐져 관람객들의 환호를 받았다. 공군의 특수비행팀인 블랙이글 역시 전시회 마지막날인 21일 A-37 항공기의 퇴역비행을 수행했다. 향후 블랙이글팀은 국산 항공기인 T-50으로 기종 전환을 하게 된다. 특히 블랙이글스 A-37 항공기의 퇴역비행에는 공군참모총장의 지휘비행과 차기 공군

곡예비행 기종인 T-50의 편대비행 등 다양한 부대 행사가 함께 진행되어 그 의미를 더했다.

블랙이글스의 고별비행과 함께 공군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국민조종사를 선발, 일반 국민들이 국산 항공기인 KT-1과 T-50에 탑승하여 비행을 하는 특별한 기회를 갖기도 했다. 공군은 이외에도 일반인 공개일 첫날인 20일(토)에는 공군 E-Sports팀인 ‘ACE’의 시범 경기와 팬 사인회를, 21일(일)에는 탤런트 고주원, 한효주씨의 공군 홍보대사 위촉식을 시작으로 패션 디자이너 이기오씨와 함께 공군의 다양한 제복을 소개하는 ‘에어로스타(Aerostar) 패션쇼 2007’, 행사장을 찾은 국민들에게 많은 볼거리를 선사했다.



‘에어로스타(Aerostar)패션쇼 2007’ 행사 모습

차기행사

한국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는 자주국방의 의지를 확고히 하고 이를 대내외에 과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또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는 차세대 국가발전 동력으로 평가받는 고부가가치 산업이다. 탈냉전 이후 다극화시대를 맞아 세계 각국은 첨단 과학기술의 결정체라 할 수 있는 동 분야에 대한 육성 및 투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국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는 대한민국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의 척도로서 국내 관련 산업분야 전반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범국가적 차원의 전시회다. 국내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발전을 위해 개최되는 동 전시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범국민적 관심과 성원이 촉구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차기 행사는 2009년 10월 20일(화)부터 25일(일)까지 6일간 서울공항에서 개최된다. 한국의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발전을 위해 개최되는 동 행사에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성원을 바란다. ☺